

'보행안전' ... 전주 주요 교통섬 정비

시, 118개 교차로 교통섬 연차 정비키로

전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을 정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완산구 속고개로 비전대학교 사거리와 덕진구 기린대로·안덕원로 사거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내 118개 교차로의 교통섬을 연차적으로 미관과 이용편의성을 고려, 안전하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교통섬 정비를 통해 각종 노상 지장물을 정리하여 도로비우기와 노후·파손된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웃자란 수목 등을 정비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교통섬을 정비하는 과정

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괄조경가의 자문을 토대로 수형이 좋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나무도 식재할 방침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기보다는 한여름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되는 나무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완산구 권역의 69개

교차로와 덕진구 권역의 47개 교차로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교차로 교통섬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천만그루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장소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 벌금 70만원 확정

지사직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주시장은 송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지사는 송하진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송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에야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도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석훈 기자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 본격화 나서

전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예술인 복지증진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예술인복지증진센터(이하 센터)를 설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장르별, 지역별, 세대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기관과 연계하는 사업들의 안정화는 물론, 중앙에 비해 열악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다소 개선해 예술인들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기관과 예술인 매칭 협업프로젝트 실행으로 예술인들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기업-예술인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활용사업'을 확대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이색적인 형태의 작품발표 기회가 제공되고 참여기업·기관은 예술을 활용해 이슈 해결과 지역사회 환원 프로젝트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육이 단절된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 재교육 과정에 지난해 3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올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기획자들의 초대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2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생명보험사회복지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양지노인복지관 조유희정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에서 남성독거노인을 위한 '힐링센터'가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복지현장 인권침해 예방

전주시, 복지관 인권실태조사결과 공유 간담회

전주시가 전주시역 6개 노인복지관과 손을잡고 이곳 시설봉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시는 22일 노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분야 인권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해온 전주시 지원·운영 6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건의사항 전달 △사회복지 현장에 맞는 종사자 권리구제 청구 마련 논의 △인

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관 및 전주시의 역할 논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안내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장 등 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일터과통합 등 인권침해 방지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인권센터는 각 기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신고 등 적절한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인권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금품살포 혐의'

남원 A 조합장 구속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음식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유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을 주민 B모(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조합장은 B씨 등 2명에게 75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전주 선미촌 변화 '속도'

민간기업 예술촌 프로젝트 참여 SKT, 선미촌 인근 전주사옥에서 청년작가 갤러리 전시 운영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만드는 전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전주시는 22일 SK텔레콤 전주사옥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SKT 가치혁신실과 서비스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커뮤니티 청년갤러리' 전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KT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사옥 후면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키로 결정해 이번 청년갤러리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

청년갤러리 전시는 선미촌에서 운영 중인 예술가책방인 '물결서사'의 참여작가 7명과 SK텔레콤, 사회적기업인 '위누'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게 된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업무공간을 갤러리로 만들어 티월드 내에서 청년작가 전시를 하는 '청년갤러리' 사업

으로 인천지점에 1호를 개관했으며, 전주지점을 청년갤러리 2호점으로 선택했다.

이기운 SKT 가치혁신실장은 "티월드 업무공간에 청년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문화예술 소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위누와 손을 잡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SKT 전주지점의 이번 전시는 취약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성원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SKT는 선미촌에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최초의 기업"이라며, "이번 전시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선미촌이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선미촌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이곳 선미촌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진작가를 발굴해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커뮤니티 청년갤러리는 △ICT기술을 통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ICT 케어 교육인 '아린이 대상 맞춤형 ICT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스쿨' 등과 함께 SKT의 행복커뮤니티 사회공헌사업의 핵심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 구도심 중앙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나서

전주 구도심 중앙동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전주시는 중앙동 주민화합공동체가 제안한 '마을을 깨어하는 중앙동 커뮤니티 농원'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19년 '공동체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국·도비 1.2억원과 시비 0.8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태평·다가지역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유류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양묘장 조성 및 운영 △마을축제, 벼룩시장 등 동네 활성화 사업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산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